시론

한국 축산 미래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

- 식량 안보와 육식 유해론 -

윤 봉 중
축산신문 회장

■ FMD재앙, 선진화의 터닝포인트로

지난 겨울 FMD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특히 우리 축산업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 축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번 FMD와 같이 축산 산업의 물줄기를 확 바꾸어 놓은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꼽고 싶다. 이 우루과이 협상 타결과 동시에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우리 축산업은 국제적인 무한경쟁 시장에 완전히 노출됐다. 그 이전 까지 국내 산업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지원 받던 산업의 틀로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은 우리 축산업이 냉엄한 국제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까 적잖이 걱정했다. 하지만 다행이 한우산업을 중심으로 고품질과 차별화라는 키워드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라면 2003년 미국발 광우병 파동이 아닌가 싶다. 국내 쇠고기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미국 쇠고기가 하루아침에 수입이 중단되자 한우산업은 그 이전까지 제기됐던 과잉 우려를 말끔이 씻고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다. 안전성 문제가 축산업의 핵심적인 화두가 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축산업계는 이를 계기로 우리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거의 구축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식당으로까지 확대한 것을 비롯 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했는가 하면 농장에서 판매장에 이르는,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축산 등록제, 무항생제 등 친환경 축산 인증제 등도 축산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겨울 FMD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지역의 구제역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난 4월 12일 FMD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기까지 살처분 가축은 한육우 3천111농가 11만4천474두, 젖소 638농가 3만 6천397두, 돼지 2천113농가 3백31만7천864두다. 이에 따른 피해는 가축 직접 피해만 약 3조에 달하고 연관 산업의 피해까지 합하면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FMD재앙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보상 기준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FMD청정화를 위해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루과이라운드와 광우병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뤘던 우리 축산업이 이번 FMD재앙 위기를 다시 한 번 기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이는 우리 한국 축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 식량 안보

첫 번째 키워드는 식량안보다.

'식량 안보'란 그 중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매우 진보한 말이 된 느낌이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쩌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식품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해서다.

글로벌 시대, 무역이 자유롭고 시장이 개방된 지금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FMD재앙을 겪은 지금 돼지고기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돼지고기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얼마나 급했던지 수입 돼지고기가 팔리지 않았을 경우 손실까지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지고기를 양껏 수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수입국의 돼지고기도 부족할 뿐 아니라,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돼지고기 뿐이겠는가. 쇠고기도 닭고기도 지금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 쇠고기 닭고기가 부족하여 수입하려고 하면 수입국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참에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물가(축산물)안정 대책은 국내 축산기반을 일정수준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다. 사실 FMD 대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축산식품 생산 기반을 일정수준 안정되게 구축할 것인가. 그 답은 논에 있다. 우리는 다행이 지난 2008년 농지법을 개정, 축사도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농지에 축사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축사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축

산식품도 식량인 만큼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의 개념에 축사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농지에 축사 진입이 가능케 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경종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음이 강조됐다. 돌이켜 보면 오늘을 위해 농지법을 그렇게 개정해 놓은 듯 절실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농지에 축사 진입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하는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육식 유해론

두 번째 키워드는 육식 유해론이다.

우리는 언제 부턴가 육식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웰빙음식하면 으레 채식을 떠올린다. 서점에는 채식 찬양가가 넘쳐난다. 과연 우리 식탁에 우유나 고기 계란이 사라지면 건강한 삶,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영양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채식과 육식의 균형잡인 식탁을 강조하고 있다.

육식의 중요성은 최근 많은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에 가려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포유동물로서 채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닌 잡식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채식과 육식의 균형잡인 식단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물성 식품인 고기, 우유, 달걀 등의 육식을 적절하게 섭취해야만 채식에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의 어린이는 물론 노인도 육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고기를 먹어야 근육량 감소를 막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강한 근력을 가진 노인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육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국내 간 전문가로 유명한 김정룡 박사는 간경화나 간암 등 간질환 치료에서 고칼로리, 고단백의 균형있는 식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기형아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규박사는 산모가 채식위주의 식단에 의해 단백질 등 영양 결핍으로 기형아가 탄생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렇듯 육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축산인들 조차 육식 유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육식 유해론 추방은 단순히 축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지도자들이 이 육식 유해론 추방에 앞장서야 하며, 축산인 전체가 육식 홍보대사가 돼야 한다.

우리 축산업 역사에 있어 FMD재앙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식량안보와 육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